

지역 소식통

부안 동진면 제전주민들
군청 전운옥 주무관 감사패

부안군 동진면 제전마을(이장 김경원) 주민들이 지난 12월 31일,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손수 감사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안전총괄과 생활안전팀의 전용옥 주무관이 그 대상자이다. 동진면 제전마을도 여는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계속된 인구 유출과 노령인구 증가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했다.

전운옥 주무관은 자원봉사자와 협업을 통한 행복드림반을 운영하며 세대 누전차단기 및 노후 LED등기구 교체, 상지 장애인을 위한 문손잡이 부착, 화장실 미끄럼방지제 도포 등 거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다.

김경원 이장은 "주민을 위해 휴일과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니 어르신들이 무탈 쪽 펴고 주무관님 감사"라며 "부안군의 관심에 크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보안면 청자골문화
센터 작은목욕탕 운영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문화센터 내 작은목욕탕이 2022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주민들의 관심 속에 운영을 개시했다.

보안면 작은목욕탕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청자골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목욕탕이 없는 보안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안면민의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이며 남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상시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수급자·장애인은 1천원, 65세이상·미취학아동은 2천원, 일반주민은 3천원이다. 또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및 코로나 19백신 접종완료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입장이 불가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고창

서해안권 생태관광 거점 도약...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비둘관 같은 기지근한 밭과 그 곁에 줄지어 서있는 큼직한 나무 창고 고창의 염전(鹽田) 풍경은 무척 낭만적이다. 비닷가에 끝없이 펼쳐진 염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확 터어지는 것처럼 청량한 느낌을 준다.

고창갯벌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로 등 록된 자연 그대로의 살아 숨쉬는 정경 갯벌염전에서 만들어낸 명품 소금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고창"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고창군이 태양광 개발 광풍에 밀려 자칫 사라질 뻔한 갯벌을 보존하면서 서해안 대표 생태 관광 자원으로 키운다.

4일 고창군은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물꼬를 뜨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4년 전(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와 손잡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공동 용역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9년 연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반영 시켰고 고창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창군의회로부터

2019년 공유재산 심의 의결 과정도 거쳤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은 심원 염전부지에 염생식물원을 지어 봄부터 가을까지 칠면조·합조·비속 등이 초록과 분홍으로 물들게 된다. 또 철새 체험관도 들어선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고창갯벌은 저어새와 검은물떼새 등 수많은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철새가 쉬어가는 곳이다. 이밖에 전망대, 테마캠핑장 등 자연친화적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최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매체 등에 소개된 명사십리 해안 등 고창군민의 특화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자구를 지정한 계획이다. 해양 치유는 해수나 진흙,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각종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우게 된다.

▲고창, 태안반도-목포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

지난해 9월 고창부안을 잇는 국도77호선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국토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고, 내년 정부예산까지 반영됐다. 이로써 고창은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 부안 변산, 전남 무안 목포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바지락과 지주식 김 등 특산물 판매는 물론, 동호·구시포해수욕장도 방문객이 밀려들며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SOC사업 추진 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노을대교의 경우 관광형 대교로 건설돼 운영인력과 관련 관광 및 상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은 노을대교로 인한 해양관광뿐 아니라 내륙 관광자원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인접 시·군간 협력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서해안철도(목포-새만금) 건설, 선운산반산반도 케이블카 설치 등 인근 시군과 함께 대규모 연계사업을 찾아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먹거리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인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돼 염전부지 개발에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한우 경매 가축시장 방문

유진섭 시장이 4일 임안년 새해 첫 한우 경매가 열린 순정축협 정읍 가축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당부하고 신년 인사를 나눴다.

이날 가축시장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380두의 송아지가 경매·거래됐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읍 축산업의 발전 방향과 한우 거래 동향을 살펴보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우농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축협 관계자와 경매에 참석한 축산농가를 위로·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07년 개장한 순정축협 경매시장이 농가소득 증대와 정읍 한우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축산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읍 한우 브랜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

'2022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 거래 질서 확립 나서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중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찻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정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

작성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 확인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말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등 위법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2년도 국가 예산 5157억원 확보

전년 대비 10.8% 증가... 지역경제 발전 '속도'

정읍시가 2022년도 국가 예산으로 5,157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발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는 전년도 4,655억원 대비 502억원(10.8%)이 증가한 규모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또한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수치로 내년도 정읍시 주요 현안 사업과 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찾았고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종·국회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중앙부처·국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사업은 ▲정읍 부전~칠보(국도 49호) 2차로 개량사업(2억, 총사업비 1,019억) ▲가죽분노 공공 처리 시설(우분 연료화) 설치사업(2.5억, 총사업비 438억)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21.93억, 총사업비 60억) ▲봉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65억, 총사업비 140억) 등 정읍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사업으로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미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공조한 결과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10억, 총사업비 180억) ▲정읍시 공원 길감형 콘서트 제작 지원(5억, 총사업비 30억)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21억, 총사업비 55.5억), ▲부전지구 치수 능력 확대(3억, 총사업비 90억) 등 11개 사업 62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국가 예산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